

보석처럼 빛나는 연암의 '기자적 기질'을 만나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조선의 대기자, 연암

강석훈 지음

조선시대에도 기자가 있었다. 그것도 대기자라 말이 다. 연암 박지원(1737-1805)이 오늘날로 치면 대기자다.

흔히 오늘날 오랫동안 취재현장에서 쌓은 노하우가 풍부하고 식견이 있는 기자를 대기자라 칭한다. 그만큼 전문성과 기자로서의 역량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게다.

그렇다면 왜 연암을 대기자라 말할 수 있을까. 그는 "대기자의 면모와 식견, 실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대장정의 '르포르타주'인 '열하일기'를 썼다. 일반적으로 르포르타주는 단편적인 보도를 넘어 '특정 주제나 지역사회, 사회 현상을 심층 취재한 기자가 취재를 태도로 자신의 논평이나 에피소드 등을 종합적으로 갈무리한 기사'를 일컫는다.

연암 박지원을 지금껏 다른 책들은 많다. 학술적 입장에서, 여행자적 입장에서, 정치·사회와 연관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한 책들이 그것이다. 책들은 연암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 나름 의미는 분석의 틀과 지적인 기여를 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연암의 삶을 '기자'라는 조명한 저서다. '조선의 대기자'라는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일반 기자가 아닌 대기자라는 말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 지적인 저작물을 생산했다는 의미를 함의한다.

책을 쓴 강석훈 전 KBS 기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요 부장과 상하이 특파원, 베이징 지국장을 역임했다. 중국 특파원 시절 '열하일기'를 완독하며 연암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대기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기자의 시각에서 연암 박지원을 조명하고자 이 책을 저술하게 됐다."

저자는 열하일기에 수록된 내용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취재의 결과물로 상정한다. "청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풍속, 음악, 학문 등에 대한 방대한 기록과 다양한 에피소드, 높은 식견과 깊은 학식을 바탕으로 한 심층 필담"이기 때문이다. "기자 정신"이 없으면 펴낼 수 없는 "르포르타주보다 뛰어난 대작"이라는 것이다.

"열하일기에는 연암의 기자 정신뿐 아니라 현장의 냄새를 맡는 기자적 본능과 좌중우돌하며 발로 뛰는 기자로서의 자취, '취재 보도에는 피아(彼我)'가 없다는 중립적인 관찰자의 자세, 그림자와 매아리를 얻는 취재 기법 등은 오늘날에도 본받고 배워야 할 기자상(記者像)이 보물처럼 간직되어 있다."

무엇보다 연암을 스스로를 기자라 칭한다. 1780년 8월 1일 북경에 도착한 날 열하일기 기사에서부터. 일단 자신을 삼류 선비라 규정한다. '해야 할 말을 하고 써야 할 글을 쓰는'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사건 기자로서의 연암의 면모가 드러난 일화가 있다. 이를 받음 세워가며 중국 작통 골동품의 취재한 일이다. 연암이 심양에서 사건 골동품상인 전사(田士河)라는 인물을 골동품 감식의 전문가다. 두 사람은 서로 흥금을 터놓고 지낼 만큼 관계가 좋다. 전사기는 작통 골동품을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연암이 작통 골동품을 고발하는 기사를 쓰게 된 내력이다.

연암은 열하까지 갔다 오는 기간 다양한 현장을 누볐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취재하면서 하인이나 말뿔이꾼, 군위 등 사절단의 하층민과 관련된 기사를 썼다.

열하일기에는 청나라 관리의 부패뿐 아니라 조선 양반 세력이 이종성과 무지몽매 등에 대한 부분도 적지 않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언론인으로서의 연암의 철저한 자기 자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글도 눈에 띈다. "천하대세를 보고 천하지우를 근심한다"는 내용이 그것. "당시 선진국인 청나라가 발전된 문물과 제도, 실리적 외교를 바탕으로 동북아 질서를 잡아가는 큰 형세를 살펴본 뒤 우물 안 개구리 격인 후진국 조선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부민강국의 방법을 고뇌하며 조선에서의 공공선을 추구했다. 열하일기에서 구체적 목적으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이용후생이다."

<니케북스·2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BS 역사스페셜 '박지원의 열하일기 4천리를 가다'에서 캡처.

제23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2022

김멜라 외 지음



편협성 소설가는 이 작품에 대해 "악몽의 형식이 아니라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가장 복된 방식"이라고 평했다. 죽음의 무게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에 대한 미덕의 가치를 부여했다.

바로 김멜라 작가의 '제 꿈 꾸세요'다. 제23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은 대상 수상작 김멜라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우수작품상 수상작 김지연 '포기', 백수민 '아주 환한 날들', 위수정 '아무도', 이주혜 '우리가 파주에 가면 꼭 날이 흐리지', 정한아 '지난밤 내 꿈에', 이서수 '연희동의 밤'이 실렸다.

대상 수상작 '제 꿈 꾸세요'의 주인공은 나다. 죽음의 가이드 챔버를 만나 다른 사람의 꿈속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이색적인 모티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귀여운 챔버를 따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차례차례 방문하는 나라는 주인공을 보며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아마도 좋은 꿈을 꾸는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한국 단편문학의 어제와 오늘을 가늠할 수 있는 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효석문학상은 그동안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수상을 할 만큼 권위가 있다. 올해 23회는 오정희, 구효서, 김동식, 편혜영, 이경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대상 수상작 '제 꿈 꾸세요'에 대해 "특정한 문장이나 대목을 뽑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작품 전체가 온통 개성적인 양질의 상상력으로 가득하다. 그러한 장점이 단순한 휘발성 재미로 소모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고 평했다.

<생각정거장·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불교를 꿰뚫다

등현 지음



불교는 가르침의 종교이기 전에 실천 수행을 중시하는 종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불교는 어렵다. 다루고 있는 분야도 많고 전문적인 용어도 많다.

복잡하고 깊은 불교를 쉽게 풀이한 책 '불교를 꿰뚫다'는 2500년 불교사를 관통한다. 등현 스님이 발간한 책은 초기불교에서 섣가지를 망라하고 있다.

저자인 등현 스님은 근일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사미계를 1989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3년부터 무려 20여년간 스리랑카를 비롯해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하며 불교 원전을 공부했다. 이후 12개국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태국에서 3년간 강의했다.

저자인 등현 스님은 남다른 삶의 이력을 갖고 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죽음을 체험하고 종교에 심취했다. 결국 출가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과 싸워 했다. 그렇게 새로운 길을 모색해 불교를 깊이 공부하게 됐다. 귀국 후 스님은 '불교신론'에 '초기불교에서 섣가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했다. 이번 책은 당시 연재했던 원고를 다듬은 글들이다.

1부 '초기·부파불교의 수행론'에서는 초기 경전과 '구사론'에 나오는 수행론을, 2부 '대승의 수행론'에서는 중관학파와 유식학파의 수행론과 '십지경'의 수행론을 다뤘다. 그리고 3부 '선종의 수행론'은 '능가경'의 수행론과 달마사 및 조사선의 수행론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여러 불교 사유를 토대로 각각의 퍼즐 조각의 맞춤형 위치를 찾아 연결했다. 무엇보다 불교의 큰 그림을, 불교의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불광출판사·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습지, 새들의 안부를 묻다

황현만 지음



동서를 가로지르는 한강과 북쪽에서 내려온 임진강이 만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의 '교하'. 이곳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져 삼국시대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

책 '습지, 새들의 안부를 묻다'는 공통천 하류와 교하강, 교하 들만에 서식하는 새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에 기록된 새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포함해 60종이 넘는다. 한강의 마지막 지류인 '공룡천 하류' (교하강)는 갈대 자생군락과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 먹이가 풍부하다.

수많은 생태사진 작업을 해온 저자 황현만 작가는 2008년부터 15년 가까이 기록해온 사진 작업의 결과물을 책 한권에 담았다. 황 작가는 책을 통해 자연의 다양한 모습과 자연이 가진 힘에 대해 얘기한다. 동시에 무분별한 개발 앞에 무기력해진 자연의 모습도 내비춘다.

책은 농부가 트랙터에 쟁기를 달고 눈을 갈아엎는 봄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그 위로 백로와 황로가 농부 뒤를 친구처럼 졸졸 따라다닌다. 여름이 되자 교하강에 찾아온 물닭과 원앙이 눈에 띈다. 초록 들판 위로 백로와 황로가 새끼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도 담겼다. 추수가 끝난 가을, 쇠기러기 무리가 강으로 날아들어온다. 겨울 강을 가로질러 건너는 고라니의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계절마다 돌아오고 떠나기를 반복하는 철새들, 터전에 몸담고 살아가는 동물들 앞에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흙더미가 쏟아진다.

'얼마 후 도로가 완성되었다. 그 뒤로는 재두루미를 볼 수 없었다' 이 책은 이렇게 덮어진다. 교하들만은, 교하강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물음표를 남긴채.

<소동·3만5000원>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